

우리학교에서 부르는 세계 속의 아리랑

우리학교 서울 FBS 주최 10개 언어 아리랑 콘서트 개최



▲ 지난 3일 서울배움터 사이버관에서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주년을 기념해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구성하고 주최한 10개 언어로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다. 공연의 맨 마지막 곡이 아리랑을 부를 때에는 전 관객이 일어서 함께 부르는 등 감동을 더했다.

이번 달 3일, 우리학교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대강당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 우리민요 아리랑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하며 서울교육방송국 FBS가 주관하는 '아리랑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우리학교 교수 및 통번역대학원 학생들이 아리랑을 9개 외국어로 번역하고 외대합창단이 불렀다. 이날 공연에는 박철 총장을 비롯해 여러 교수와 학생들이 가득 자리를 매웠다.

박철 총장은 "오늘날 문화의 생산과 전파는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며 "이번 공연은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첫 시도로 언어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인의 문화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번역 작업은 우리학교 통번역대학원 '뮤지컬번역' 담당교수인 전종섭 총감독의 지도하에 통번역대학원 소속 통번역사들과

언어인지학과 교수진 총 14명의 무보수 자원봉사로 한 학기의 작업 끝에 이뤄졌다.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학교가 앞으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를 세계로 전파하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역량을 보일 수 있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경기 아리랑을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영어 총 9개 언어로 번역했다. 스페인어의 번역을 맡은 통번역대학원 한서과의 장대현 씨는 "이전까지 노래번역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음을 맞추고, 원본의 의미가 살아나게 번역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마련하는 큰 계기가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아리랑의 영어 번역 가사에서는 우리민족 특유의 한(恨), 애절함과 슬픔의 전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영국의 시를 바탕으로 2절, 3절을 새로 쓰기도 했다.

더불어 창작 뮤지컬 <영웅>의 주제가 '영웅'을 중국어와 영어로, <피맛골연가>의 '아침은 오지 않으리'를 중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해 부르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우리학교 출신의 코러스 싱어 박호정 동문(인문·언어인지학과 08 졸업생)과 정동원 학생(국제경영학과 09), 박세리 전문 통번역사(통번역대학원 한일과 일본어)가 특별출연했다.

이번 공연을 관람한 이가은(정외13)양은 "우리의 아리랑을 다양한 언어를 통해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국내 제일의 외국어대학교인 우리학교에서 시작한 이번 공연을 통해 학교가 더 자랑스럽고 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우리학교 박상미 교수,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주도

12월 5일,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12월 2일에서 7일까지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열린 제 8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24개국의 투표를 거쳐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를 최종 확정했다. 김장문화는 등재 심사에 앞선 사전 심사에서 '등재 권고'를 받아 등재가 확실 시됐다.

이번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에는 숨은 주역이 있다. 바로 우리학교 박상미 국제학부 교수다. 박 교수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의 위원으로 이번 등재에 신청서 작성을 주도했다. 박 교수가 주도한 김장문화 등재 신청서는 A4용지 25매 분량으로 작성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신청서에는 김장 문화가 우리 삶에서 공동체로 작용한 나눔의 문화로 과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누구나 김장독에서 김치를 가져갈 수 있는 풍습을 기

록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대에도 전해져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수천 명이 함께 김장을 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등 나눔 문화를 강조했다. 이 신청서는 유네스코 심사에서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김장문화가 공동체를 통해 여러 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전승됐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며, 공동체 간 정체성과 소속감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지난 해 2월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90% 가량의 한국인이 직접 김장을 담그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박 교수는 "이번 등재를 통해 전 세계에 '문화국가'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집집마다 다른 전통과 손맛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그 다양성 역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의를 밝혔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지면안내

2·3 박철 총장 8년의 발자취

4 대학 언론이 나아가 길

8 부딪히며 완성해가는 두 학생의 '음악인생'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내 최고의 글로벌 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가 내년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합니다.
1954년 5개의 외국어학과로 출발하여 지금은 11만명의 동문들이 국내와 세계 5대양 6대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호흡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의 역사가 만들어 낸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그 전통을 기억하고 계승할 동문회관 건립을 위해 ARS 모금을 시작합니다.
한 통화의 사랑 ... 외대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장 권순한

외대사랑 동문회관 건립기금 060-700-0202 (1통화 만원)

No change, no future의 신념으로... 변하지 않는 건 학교사랑뿐

2006년 3월 취임해 우리학교 처음으로 연임에 성공한 박철 총장이 다음 해 2월을 끝으로 임기를 마감하게 된다. 박 총장이 자주 언급해 온 "No Change, no future"라는 말처럼 그의 임기 8년간 우리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다음 해부터도 우리학교는 본·분교통합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다음 달이면 차기 총장이 임명되는 이 시점, 외대학보가 박철 총장과 함께 지난 8년을 되돌아봤다.

Q. 2006년 취임해 우리학교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총장이다. 지난 8년을 돌아보며 감회를 밝힌다면

2006년 3월부터 시작해 우리학교 발전의 막중한 책무를 짊어지고 총장직을 맡은 지 7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이번 학기는 주어진 임기의 마지막 학기다. 돌이켜보면 지난동안 무사히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교수들과 직원, 11만 동문, 재학생들이 학교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합심해 도와준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외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린다.

Q. 본인이 평가하기에 지난 8년간 학교 발전에 가장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무엇인가

우리학교가 어떻게 특성화된 글로벌 명문대학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결과, 우리학교는 2009년 이후 5년째 국내 글로벌 분야 1위의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으며, 조선일보-QS 세계 대학평가에서도 현대 어문학분야에서 세계 대학 34위를 기록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12년 3월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본교 방문은 재임 중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기억된다. 이는 지난 7년간 모든 외대 가족이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한 땀의 결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의 위상이 매우 커졌고, 국내외에 우리학교를 세계적 대학으로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아직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양 배움터에

공히 대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제2 도서관과 세계 각국의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신 기숙사를 건설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명문 대학으로서 시급히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재단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확대돼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Q. 7+1 파견 학생제도를 도입하고 해외 제휴 대학도 2배 이상 확대되는 등 우리 학교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외부평가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국제화 부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국제화에 주력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취임 당시 우리학교의 자매대학은 150여개 대학이 전부였다. 그만큼 국제화가 미미했다. 우리학교의 살길은 국제화뿐이라고 생각했다. '외대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슬로건도 그때 만든 것이다. 우리학교 학생이라면 한번은 꼭 해외에 나가서 체험을 하는 것이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취임 후 국제교류처장과 해외 대학들을 맨손으로 찾아다니며 교류협정을 맺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그 결과 자매대학이 이전보다 3.5배가량 늘었고, 매해 1,000여명 이상의 우리학교 학생들이 해외대학에서 공부한다. 국내 최초로 유엔평화대학 석사과정을 개설했고, 국내 최초로 외교부, KOTRA, 한국언문화원 등 해외에서 인턴십을 시작한 것도 큰 보람이다. 국내대학으로서 처음으로 유엔 16개국 참전용사 후손 장학 사업을 시작해 에티오피아, 터키, 콜롬비아, 필리핀 등지에서 40여명의 학생들을 초청해 국가가 할 일을 우

리학교가 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학교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일이다. 2009년 이후 국제화 부문에서 5년 연속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성과 덕분이라고 보며, 국제화야말로 우리학교가 특성화하는 길이다.

Q. 외대비전 2016의 일환으로 2,000억 기금 확보가 있다. 실제로 지난 8년 동안 발전기금을 많이 조성하고 수익사업을 활성화 시켰다. 이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과 아쉬운 점은

취임하던 2006년 당시 학교예산은 약 1,200억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1년에 들어서면서 예산이 2배 이상인 2,5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 7년간 동문들과 우리학교를 사랑하는 분들이 학교로 발전 기금을 많이 보냈던 덕분이다. 조명덕 여사를 비롯해 이덕선 동문, 윤강로 동문, 윤덕병 한국야쿠르트 회장, 김재철 동원그룹회장 등 많은 분들이 기금을 아끼지 않았다. 그동안 학교 건물을 짓고 리모델링하는 일 등에 총 2,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우리대학의 투명한 행정과 자율적인 학사에 힘입은 결과라 보며, 우리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된 데 모든 외대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다음 해부터는 등록금 수입예산에서 건설 등을 하지 못하게 돼 염려된다. 이제는 재단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개교 6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시대를 맞아 11만 동문들이 후배 사랑의 표시로 장학금과 모교발전기금 참여운동에 더욱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Q. 앞으로의 본·분교통합 체제에 어떤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본·분교통합을 추진하며 아주 어렵게 교과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냈다. 총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했기에 큰 보람을 느낀다. 본·분교통합으로 우리학교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는 같은 대학으로서 각각 특성화된 학과로 교육을 할 것이다. 학생의 선택폭은 더욱 넓어지고 이제 더 이상 본교, 분교라는 말은 필요 없으며 우리 모두가 외대인일뿐이다.

대학 교육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선도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지식과 인성을 심어줘야 한다. 우리학교도 본·분교통합으로 이중전공, 전과 제도 등을 비롯한 학사운영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공계 학문과 어문, 통번역, 인문, 경제, 경영학 등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및 교육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는 것이 꼭 필요하다. 다음 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아 시작되는 본·분교통합 학사운영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외대 100년을 겨냥한 학사제도의 개혁을 더 가속화해주시기를 기대한다.

Q. 2014년부터 LD학부가 신설된다. LD학부를 신설하면서 기존 학과들과의 중복



논란이 있었는데도 추진한 까닭은

우리학교의 전통과 자라는 지난 60년 동안 수많은 외교관들을 배출해온 것이다. 지난 해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학교가 대한민국 경제 기적의 주역이 된 글로벌 인재들을 배출한 학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해부터 외교관 시험이던 외무고시가 사라지고 국립외교원이 출범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외교관을 선발·교육 시키게 됐다. 이에 필연적으로 LD학부를 신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교수, 학생 등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뤄졌다. 시대가 변하는 것에 따라 새로운 상품이 계속 나오듯 오늘날 대학도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2006년부터 총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호소해온 것도 '외대의 변화와 개혁'이다. 'No change, no future'라는 표현을 자주 써왔다. 기존의 학과들과 중복되지 않는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걱정보다는 자신감을 갖고, 세계무대로 나갈 수 있는 외교관 등 글로벌 인재가 될 꿈을 우리 학생들이 꾸고 이를 성취해주시기 당부한다.

Q. 임기동안 이루지 못한 목표사업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지난 7년간 학교의 교육 시설이 175%로 증가했다. 오랜만에 모교를 찾는 동문들이 배움터가 상전벽해가 됐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서울배움터에 제2 도서관 건설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기숙사 증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배움터, 글로벌배움터, 송도배움터가 삼각을 이루게 되면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본다. 하루속히 송도배움터 교육시설 건설을 서둘러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고 재학생도 함께 기숙하면서 공부하는 날을 기대한다. 차기 총장과 재단의 송도배움터 건설 의지가 당락이다. 재단의 결단이 필요하다.

Q. 2014학년도부터 본격적인 대형대학으로 재도약하는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차기총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총장의 수많은 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교권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학교는 1990년대 소위 구 재단 하에서 교권이 추락하고 학사행정의 자율성이 위축된 가운데 대학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날개 없는 추락을 했다. 원대한 비전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 총장으로 선출돼 개교 60년을 맞는 우리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써 주기를 소망한다.

Q. 퇴임 후 계획은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총장직을 마감하고, 다음 학기부터는 평교수로 연구와 학교 발전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8년간의 경험과 모든 것을 학교 발전을 위해 제공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재임 8년 동안 함께 외대 발전에 동참해 준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큰 힘이 돼준 교수, 학생, 직원, 동문, 학부모 등 외대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10월 28일 본지는 지난 8년간 우리학교를 이끌어온 박철 총장을 만났다. 박 총장은 지난 날을 떠올리며 열띤 모습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박철 총장 8년, 그 변화와 발전의 발자취를 따라서

2006년 취임한 박철 총장은 우리학교 최초로 연임에 성공한 총장이다. 재임 8년 동안 박 총장은 양 배움터 건물신축과 국제화 지수 상승 등 우리학교의 여러 발전을 일군 바 있다. 그런 그가 이번 해 2학기를 마지막으로 총장 직을 마치게 된다. 이에 본지에서 지난 8년 간의 발자취를 따라 업적과 역사를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우리학교는 32개 언어학과로 45개의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이다. 또한 세계 각국 정상들의 방문도 많았는데 가장 크게는 지난 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비롯해 슈미트 팔 헝가리 대통령 방문, 라우라 친치야 코스타리카 대통령 방문과 가장 최근에는 브로니스와프 코모로프스키 폴란드 대통령이 방문해 특강을 가진 바 있다.

이처럼 박철 총장은 특히 우리학교의 국제화 부문에 초점을 맞춰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

(7+1 파견학생 제도)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1개 학기를 외국 대학에서 수학함으로써 우리학교 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2007년부터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해외 대학에서 수학하고 정규 학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제도를 통해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은 약 3,000여 명이 넘는다.

국내 제1의 글로벌대학의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교로 파견이 가능하며, 해외대학에 방문학생 자격으로 학부수업을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학교 학생은 이에 따른 대학생활과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및 문화를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다.

(2+2 복수학위제도)

우리학교와 파견대학교와의 상호협정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2년, 파견 대학교에서 2년을 수학한 뒤 양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이다. 파견 대학교는 다음과 같다.

- 미국 텔라웨어대학

복수학위 수학기 동안 취득한 학점은 학과장 승인 후 우리학교 졸업학점에 포함되므로 재학 기간 내 두 개의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우리학교와 텔라웨어대학에서 각각 다른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각 전공별로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대만사범대학

2012년부터 시작된 대만사범대학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은 제1전공이 중국학부 또는 중국어통번역학과이며 전공심화를 선택한 학생이 지원 가능하다. 우리학교에서 전공 학위와 대만사범대학의 중문학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양교의 졸업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이에 각 대학교의 졸업학점과 필수 이수과목 등을 졸업 학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교부 재외공관 인턴십)

재외공관 인턴십 제도는 지난 2007년 1월 우리학교와 외교부 간의 상호협정으로 최초로 시작된 미래청년 외교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재외공관에서 외교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동시에 최대 12학점까지 우리학교 정규학기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	1학기:14개국16개무역관	16명
	2학기:25개국30개무역관	32명
2009	1학기:33개국38개무역관	45명
	2학기:28개국32개무역관	40명
2010	1학기:45개국52개무역관	64명
	2학기:42개국51개무역관	73명
2011	1학기:45개국55개무역관	82명
	2학기:46개국60개무역관	85명
2012	1학기:45개국64개무역관	102명
	2학기:47개국70개무역관	114명
2013	1학기:52개국76개무역관	123명
	2학기:54개국79개무역관	112명
계		888명

(KOTRA 해외 무역관 인턴십)

KOTRA 해외무역관 인턴십은 뛰어난 언어 능력과 실력 및 품성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 KOTRA 해외 무역관 인턴으로 파견해, 현지 실무경험을 쌓고 국제적 안목과 전문기적인 소양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우리학교 정규학기학점으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부터 매학기 파견돼 현재 12기까지 파견됐으며, 그 숫자는

900여명에 이른다. 인턴십을 마친 후 여러 명의 학생들이 KOTRA에 정식 사원으로 입사하기도 한다.

(해외문화홍보원 인턴십)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우리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우수한 우리학교 학생들을 선발해 <해외 한국문화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어실력 및 문화교류 업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제도로서 2012학년도 1학기를 시작으로 6개국 7개문화원에 15~20여명을 매학기 파견하고 있다. 6개월 (1학기) 근무하면 12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6.25참전용사 후손 장학사업)

6.25. UN참전용사후손 장학사업은 한국전쟁 60주년인 2011년부터 그 취지를 살리고자 시작됐다. 전쟁 후 6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G20 개최국으로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성장했다.

우리학교는 국내 제1의 글로벌 외국어대학답게 참전국의 언어 대부분을 가르치는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지식나눔, 교육나눔을 실현해 세계평화와 자유를 위해 배려하는 리더십, 베푸는 리더십을 실현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UN참전 21개국의 참전용사 후손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고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의 한국어연수 기간을 포함해 학사, 석사와 박사과를 포함하는 모든 학위과정의 학비 및 체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에티오피아, 태국, 콜롬비아, 남아공, 필리핀, 케냐나, 미국, 네덜란드, 터키 등 참전국 용사들의

후손 44명이 장학생으로 학·석사 과정을 수학하고 있으며 연간 5억원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교육환경

(세계 86국 533개 대학 및 기관과 교류)

우리학교는 국내 최고 수준의 글로벌 대학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글로벌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우수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보다 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06년 박철 총장 취임 당시 교류하던 해외대학이 불과 150여개에 불과했는데 2013년 10월 기준으로 86개국 533개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체결 중이며, 상호간의 학생교류, 교육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서울 지하캠퍼스 완공 및 역사관 개관)

2011년 9월, 서울배움터에는 우리학교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지하캠퍼스 구축이 완료됐다. 서울 지하캠퍼스는 지하3층~지상3층의 연면적 3,800여 평의 규모로 자연채광이 설비된 약 2,000여명 수용규모의 지하체육관 겸 대강당, 국제회의장, 피트니스센터, 세미나실,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됐다.

또한, 1957년 준공돼 50여년간 대학 본관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구본관의 일부를 역사기념관으로 리모델링해 우리학교의 전통과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신-구의 연결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이 곳에서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연설이 실시되기도 했다.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준공)

2013년 8월, 서울배움터에 들어선 사이버관은 1년 7개월만에 완공돼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건축면적 2,349.58㎡(710.75평), 연면적 16,501.17㎡(4,991.60평)으로서 이뤄졌다.

1층에는 400석 규모의 대강당, 2층에는 미디어갤러리홀과 사이버우리학교 전자도서관, 3층에서 7층까지는 중소형 강의실과 교수연구실이 들어선다. 6층에는 사이버우리학교 행정사무실을 비롯해 8층에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와 학생자치공간이 자리한다. 이번 사이버관의 완공으로 학생들에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학습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버락오바마 미국 대통령, 국내 첫 대학으로 우리학교를 찾다)

2012년 3월 말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방한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

학을 방문,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는 외국어교육과 글로벌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온 우리학교만의 교육 투자가 결실을 맺고 세계와 견줄 우리학교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일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학교의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극찬하며,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용기를 북돋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학교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외국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이라는 현대판 경제기적을 가능하게 만든 외교관, 공무원, 비즈니스맨들을 바로 이 대학, 우리학교에서 배출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제3송도 캠퍼스 구축)

지난 2008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43,595.6㎡(약 13,188평) 규모의 송도캠퍼스 부지에 대한 사업협약을 맺고 2011년말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08년 인천경제청과 사업협약을 맺은 이후 2009년에 현재의 부지를 확정 통보받은 바 있는 우리학교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금번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인근에 2012년 3월 뉴욕주립대 스톤이브룩을 시작으로 외국대학이 개교해 해외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를 보유한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인 우리학교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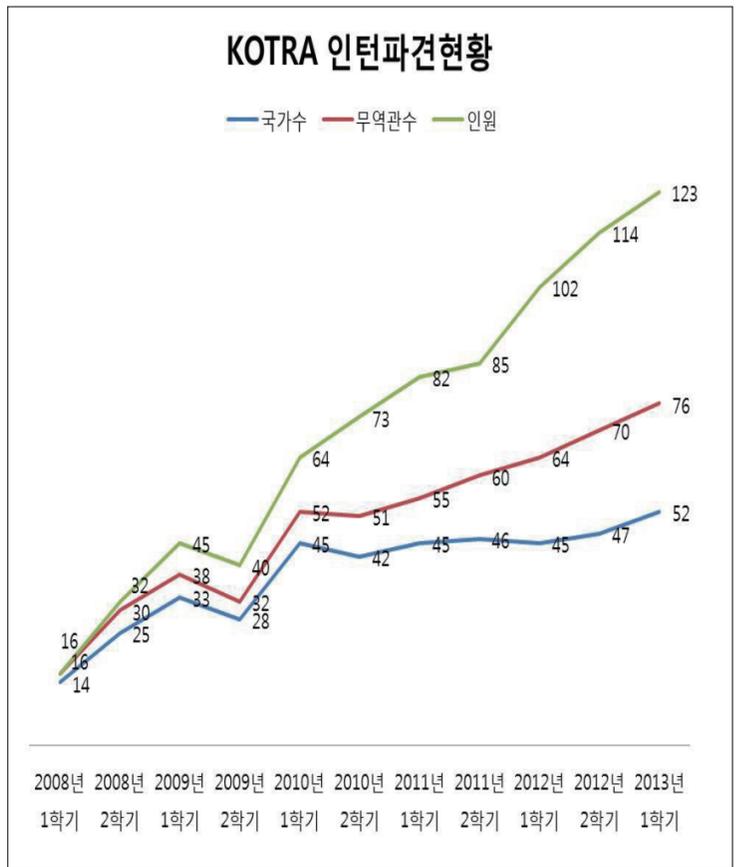
(2014학년도 서울배움터-글로벌배움터 통합 출범)

우리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본·분교의 구분이 없어지는 한국외국어대학교로 첫 발을 내딛게 된다. 그동안 우리학교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대학임에도 법적으로 별개의 대학인 우리학교와 분교로 간주됨으로 그동안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본·분교가 통합됨으로, 우리학교는 정부 재정지원사업(대학교육역량 강화사업)이나 대학인증평가, 그리고 언론을 비롯한 각종 평가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학교 평판도와 학생 취업률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배움터의 경우 인문·사회계 등 어문학 중심의 학습계열로, 글로벌배움터는 통번역, 지역학, 이공계 중심의 실용학문 계열로 특성화해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21세기의 대학언론, 새로운 역할 정의를 통해 발전의 동력 마련해야

전종섭 (언어인지과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이번 학기를 끝으로 최근 2년 동안 내가 담당한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의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지난 몇 해 동안 한국외대용인교육방송국 주간, 디아거스 편집인 겸 주간을 거치면서 2012년 2월부터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을 맡았고, 2013년에는 한국외대서울교육방송국 주간과 또한 차례 디아거스 편집인 겸 주간을 겸직하게 되었다. 우리 대학의 모든 언론사 운영을 맡았던 지난 몇 해 동안 개인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대학언론사를 운영하면서 대학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였고, 이제는 대학언론의 방향 정립이 언론사 자체의 발전 뿐 아니라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에도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대학언론의 위기

인터넷에서 '대학언론'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면 첫 화면에 '위기'라는 단어가 뜰 정도로 '대학언론의 위기'는 오늘날 대학 문화를 특징짓는 보편적인 표현이다. 외대학보만 하더라도, 811호(2002년 9월 2일) 1면에서 '외대학보가 망해가고 있소 / 외대인들에게 외면받는 외대학보라면 존립의 가치가 없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는 글을 실으며 외대학보가 대학언론의 위기를 피해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였다. 외대학보의 위기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수시로 표출되어 943호(2011년 10월 4일) 1면 칼럼에서는 '외대학보 이대로 연명하다 죽을 순 없다'는 글이 실리고, 그 후로도 학생들의 학보에 대한 관심 저하를 개탄하면서 외대학보 자체의 변화를 촉구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실리고 있다.

외대학보 811호의 진단에 따르면, 대학언론 위기의 근원은 '학생들의 외면'이다. 하지만, 위기의 근원을 다르게 보는 시각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언론사에서 일하는 학생기자 대다수는 위기의 근원을 학교 측의 편집 간섭으로 믿고 있으며, 진보성향의 기성 언론사들도 학교와 학생기자의 관계를 감과 울의 착취관계나 부당한 언론 탄압의 사례로 돌아가는 기사를 양산하고 있다.

이상의 두 입장을 중재하는 '쉬운 해석'도 있다. (1) 학교 측에서 신문에 대한 편집 간섭이 잦으니, (2) 신문의 질이 떨어지고, (3) 결국 학생들이 신문을 외면한다는 것이다. 이 중, (1)과 (3)을 연결하는 논리적 고리는 '(2) 신문의 질이 떨어진다'인데, 학생기자 대부분은 학교 측의 편집 간섭으로 신문의 질이 떨어진다고 믿고 있지만, 지난 여러 해 동안 디아거스와 외대학보를 편집하면서 내가 보고 느낀 것은 학생기자들의 믿음과 달랐다.

대학언론의 위기 진짜 이유

대학언론이 위기에 처한 진짜 이유는 '인류 문명의 변화'이다. 이렇게 거창한 이유를 제시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인류 문명의 변화라 부를만한 거대한 사건들이 있었고, 당연히 인류 문명의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주었으니 그 중 하나가 대학언론이었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주목하는 인류 문명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가속화된 '디지털 혁명'이다. 초고속 인터넷, 공중전화 앞의 긴 줄을 없애버린 휴대전화의 보급과 스마트폰으로의 진화, 이제는 외국에 나가 길을 찾을 때 종이 지도 대신 스마트폰을 켜면 현재 위치는 물론이고, 몇 번 버스가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는지도 알 수 있다. 거대한 문명의 변화 앞에서 종이 매체의 매력은 사라지고 있다.

언론의 고전적인 역할은 세상에 소식을 전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세상에 전하는 소식이 권력의 부조리까지 고발해야 하니 언론의 자유, 정론직필 같은 거대한 명분이 생겨났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의 부조리를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조성하는 대학신문의 역할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대학신문 기자가 사회의 부조리를 대학생들에게 알리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고전적인 답은 대학신문에 기사를 정론직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답은 20세기에만 정당하다. 문명이 바뀐 지금, 사회의 부조리를 대학신문에 정론직필해 봐야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한다. 첫째, 종이 신문이 나오기도 전에 그 부조리는 이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세상에 충분히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생기자들은 '그래도 대학 신문이기에 학생의 시각으로 사회 부조리를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둘째, 종이 신문에 그 부조리를 학생의 시각으로 내보야 대학생 대다수가 보지 않는다. (만일 자신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은 대학생들이 읽게 하고 싶다면, SNS나 온라인 아고라 등에 글을 올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안다.)

대학언론이 처한 위기는 독자가 신문을 외면하는 것인데, 독자가 대학신문을 외면하는 이유는 학교 측에서 편집 간섭을 하기 때문도 아니고, 신문의 질이 떨어져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한 '인류 문명의 변화'이다. 학교 측의 편집 간섭이나 신문의 질 저하는 — 일부 사실이지만 — 대학언론의 위기에 수반된 현상에 불과하다.

학교 측의 편집 지도는 왜 심해졌나?

21세기 문명의 변화는 사회 전체를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1980년대에는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회 정의를 위해 투쟁했다. 함께 일하고 고뇌하는 젊은이들이었기에 대학 입학 성적의 차이에서 오는 서열 의식은 — 분명히 존재했지만 —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대졸자 취업 문제가 지금만큼 심각하지 않던 시대였기에 대학의 서열화는 사회 전체를 비인간적인 경쟁으로 내몰 만큼 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달라졌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젊은이들은 10여 개 대학의 이름 첫 글자를 떼어낸 서열을 가지고 험한 욕설이 오가며 서열화에 매달린다. 언론사에서는 해마다 대학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의 순위를 매긴다. 이렇게 결정된 대학 순위는 주홍글씨같은 낙인이 되어 우수 신입생 유치, 졸업생 취업, 외부 발전기금 유치, 정부 지원금 유치 등 수많은 영역에서 명암을 가른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거부할 수도 없다. 경쟁에서 물러서는 순간, 10년 뒤 그 대학이 존재하지 않 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 서있기 때문이다.

학교 측으로서는 대학 언론에 대해 — 학교 신문사운영규정에 근거한 — 편집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학생기자들의 정의감은 진정으로 정의로운 때도 있지만, 젊은 혈기에서 나오는 '반대를 위한 반대', '갑이 하는 것은 무조건 나쁜 일'이라는 생각 등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학교 측의 고군분투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아마도 2013년 현재 우리 학교 구성원 중, '한국외대에 로스쿨이 있다는 사실'이 학교를 망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학교가 2008년 로스쿨 유치에 실패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그것은 향후 외대 출신 법조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며, 학교의 브랜드 가치 하락 등 전반적으로 학교를 대학 경쟁에서 밀려나게 하는 치명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 점을 잘 알던 학교 관계자들은 긴 시간 눈물겨운 노력을 통해 2008년 드디어 로스쿨 유치에 성공했다.

하지만 학생기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갑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쁜 일'이니 로스쿨 유치는 반드시 정론직필의 이름으로 오물을 끼얹어 야만 하는 사건이었다. 'Law School, Low School / The future of law school falling into disorder / The damage ... is rather big. HUFS may think the inducement was successful, but the future of the law school is not that bright' — 2008년 3월 3일, 디아거스 412호의 표지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학교 측의 편집 지도가 생기는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정론

직필의 가면을 쓰고 오물을 끼얹어 야식이 풀리는 뜨거운 피의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이며, 그런 젊은이들이일수록 대학 언론사에 모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언론사에 매년 1억의 운영 예산을 지원하고, 학생 기자들에게 매월 소정의 수당과 식대 등 기자 활동비,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학교 입장에서 대학 간의 살벌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학교구성원의 독설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21세기의 대학언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계를 바라보길!

상황을 정리해 보자. 21세기 대학언론은 위기에 처했다. 독자가 없다. 하지만 그 원인이 학교 측의 편집 간섭은 아니다. 1980년대에는 학교가 아니라 군사 정권에서 편집 간섭을 했지만 대학언론이 지금까지 독자를 잃지 않았다.

대학언론의 위기는 21세기 문명의 변화에 따른 위기이며,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20세기의 패러다임이 아닌 21세기의 패러다임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시대와 문명의 변화를 직시하고 대학언론의 역할을 새로 정의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지난 세기 대학언론이 담당했던 역할 — 사회 부조리를 감시하며 세상에 알리기, 여론 조성 — 을 부인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패러다임에 집착할 때, 대학언론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개인 블로그보다도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21세기 대학언론의 역할은 인터넷 커뮤니티, SNS, 개인 블로그에서 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대학언론은 대학의 소식지이다. 대학의 기본 기능이 학문과 교육이니, 21세기를 맞는 대학언론의 첫 번째 역할은 대학의 학문 발전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언론은 대학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학문적 성과를 찾아내어 세상에 알리고,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학문 탐구의 동기를 갖도록 유도하며, 학교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기존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어느 언론에서도 수행하지 않던 역할이기에 대학언론 자체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이며, 학교의 공식 홍보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이니 홍보지의 수동적 역할을 넘어 대학신문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대학의 발전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사실, 외대학보의 위기를 진단했던 2002년의 학생기자들은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계속 변화해나가면서 ...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 필요한 것은 변화다. 이리다 폭삭 망하게 뻔하기 때문이다. ...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신문사라는 공간의 고마움을 모른다. 구성원은 변화를 원한다. /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

2002년 외대학보 학생기자들의 위기감 표현 이후, 또 11년이 흘렀다. 11년 동안 학생기자단은 한 학기 또는 1년 간격으로 바뀌었고, 늘 위기감만 반복되었을 뿐 '필요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21세기 인류 문명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언론의 역할이 변했다는 나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가? 아직도 대학언론의 역할이 사회 부조리를 감시하며 세상에 알리는 것이거나 '갑'이 한 것이라면 잘한 것도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라 믿는가? 선택의 주체는 학생기자들이다. 하지만 무엇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개인 블로그만 못한 대학언론, 학생들에게 외면 받는 신문'으로 남아 계속 위기감만 표현하거나, 또는 대학신문 자체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발전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동력원이 될 수 있다.

지구촌을 읽다-④

제7차 한-EU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의



김세웅 교수
이탈리아어과 교수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 Centre 소장

지난 11월 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헤르만 반 롬퓌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 및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과 의 한-EU 정상회담이 있었다. 한국 대통령이 임기 첫해에 유럽을 방문한 유례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는 외교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번 해는 한국과 EU가 수교한지 50주년(1963-2013)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한국이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수교를 맺은 1963년은 한국 전쟁 이후 극도로 혼란한 사회분위기와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던 시기였다. 이후 한국과 유럽의 양자관계는 괄목할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1989년 독일이 통일되고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 1993년 통합이 진전돼 EU가 발족하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즉 EU는 경제협력에 이어 정치 및 군사분야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까지 통합의 영역을 확대하는 질적 변화를 보였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유럽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와 한국은 떠오르는 시장이며 대서양 관계 못지 않은 파트너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이는 신아시아전략의 마련을 통해 구체화된다. 한국에게는 그간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외관계에서 탈피해 외교와 교역의 다변화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그 결과 1996년 양자는 무역과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맺으며 관계를 본격화한다.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와 WTO 체제하의 도하라운드 사실상 결렬되자 다자협력에서 양자관계로 국제환경이 변모하면서 한국과 EU는 FTA 협상에 들어가고 2010년 이를 완결하면서 산업국가간 폭넓은 자유무역협정의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 기본협정이 경제관계에 치중된 점과 비교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본협정에 합의하면서 이른바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를 형성했다. 이후 분야별 대화채널이 가동돼 양자는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 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자원고갈과 같은 국제정치 및 글로벌 이슈에서 공동의 보조를 맞추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입장에서 경제성장이 이은 글로벌 코리아와 중견국 외교(middle power diplomacy)를 표방하는 전략과 맞아떨어졌고, EU는 동아시아에서 고도보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넓은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된 한-EU FTA는 이제 2년이 지났지만, 유럽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은 많이 성장된 반면, 한국의 대 EU 수출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는 2008년 이후 나타난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유럽 소비자의 구매력이 떨어진 결과다. 그러나 최근 유럽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조만간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통합의 시사점

우리에게 EU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럽의 통합은 1957년 로마조약에 의해 EEC 출범 당시 6개 회원국(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에 그쳤지만 그간 여러 차례의 확대를 통해 2013년 현재 28개 회원국 인구 5억명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며 17개 회원국이 공동화폐인 유로화를 사용하는 새로운 실험의 장이기도 하다. 비록 최근 경제위기를 통해 통합의 근간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EU 회원국들은 화폐통합에 이은 금융 및 재정통합을 시도하면서 제도적으로는 더욱 완결된 지역주의를 추구한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에 관한 외교의 4강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다. 그러나 경제관계를 보면 중국에 이어 EU는 교역규모에서 2위를 차지할만큼 중요한 파트너임을 기억해야 한다. 정치외교적으로도 EU는 군사력이 아닌 소프트파워와 규범권력을 활용해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간 대화를 주선하고 화해를 촉진시키는 조정자 역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개진되고 있다. 유럽통합의 경험은 전쟁의 참화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는 가운데 형성됐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EU는 인권과 민주주의, 법의 지배 및 시장경제를 기본가치로 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한국과는 뜻을 같이하는(like-minded) 관계면서 최적의 동반자(natural partner)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정상회담 결과

이번 한-EU 정상회담에서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선언이 채택됐으며 공동언론발표문도 나왔다. 주된 내용을 보면 그간의 양자관계발전 등에 만족을 표시하며 현안과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를 천명하고 있다.

우선 한반도 문제에 관해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준엄한 반대를 표명하면서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두는 유럽의 비판적 관여정책(critical engagement)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동북아 역내 국가간 긴밀한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정치안보적으로는 갈등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도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음 해 서울에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의 창조경제 개념과 유럽의 혁신을 접목시키기 위해 유럽혁신센터를 브뤼셀에 새롭게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 양자간의 과학 기술분야의 협력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결국 이는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모델의 지속가능성 담보와 맞물리는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분야에서도 그간의 에라스무스 문두스나 산업국가간 교육협력프로그램(ICIECP)을 확대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교류 프로그램을 발족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의 공동연구 및 사업을 통해 문화융성을 위한 한류의 확산 및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관계는 양자와 지역협력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전지구적 경제위기의 타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G20 체제에서 한국과 EU는 협력의 공간이 증대된다. 외교안보적으로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에 기여하는 노력이 지속될 것이며, 분쟁지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개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권, 인도주의 지원, 개발협력, 기후변화, 핵에너지의 평화적 사용, 비핵화, 사이버 안보 및 해적 퇴치 등에서 한국과 EU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도전을 해소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세상

‘다르마시스와(Darmasiswa)’라는 인도네시아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뒤 합격하면 본인이 선택한 6개월, 혹은 1년 코스로 각자 배정받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 기간 동안은 ‘초청’ 장학생이라는 명분에 걸맞게 학비면제



▲원희영 양이 개교기념일에 전통 옷을 입고 선보인 공연의 준비 모습이다.

에 일정한 생활비까지 매달 제공된다. 내가 배정된 대학은 처음 들어보는 도시에 있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돌아왔고 설레는 마음 보다 불안한 마음으로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처음 기숙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신났다. 기숙사는 일반 가정집 같은 모습으로 푸근한 시골집 같았다. 하지만 수도 시설이 열악한데, 하루에 일정한 시간만 물이 나와 그때 물을 받아놔야 한다. 이마저도 잘 나오지 않아 생수로 모든 것을 해결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인에게 대해 호의적이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0월 이슬람 공휴일 중 하나인 Idul Adha에 한 교수님 댁을 방문한 것이다. 쌀을 바나나 잎으로 싸 후 찌서 먹는 꼬투팻(Ketupat)이라는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어묵과 비슷한 팹팹의 음식인 뽕뽕(Pemppek)을 만드는 과정도 볼 수 있었다.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교수님은 친정에 놀러 온 딸들을 챙기듯 음식을 한 가득 쥐어줬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었기에 적응하는 것이 수월했다. 개교기념일을 맞이해 매일 연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실수 없이 공연을 했다. 처음 해보는 화장과 전통 의상, 또 전통 춤에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볼까란 생각이 모두 소중한 시간들로 다가왔다. 한국에선 공부하기에만 바빠서 잘 알았고 기에 더욱 뜻 깊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1년으로 지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흐른 9월부터의 시간을 되새겨 보며 귀국 전까지 더 알차고 많은 것들을 해보고 싶다. 언어 실력도 문화체험도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많이 배운 후 누구보다 알찬 1년을 보냈다는 자부심 가득한 마음으로 귀국길에 오르고 싶다.

원희영 (통번역·마인어 12)

운동흥
(필)

입수진 기자

어깨너머 듣는 교양

정홍성(교양학부 미술의 이해와 감상 과목 외래교수)

독수리, 다시 한 번 날아오를까?

류현진을 LA 다저스로 보내고 28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 한화 이글스의 지난 해 스토브리그는 조용했다. 구멍난 팀의 전력을 매우기 위해 타 팀 FA(Free Agent) 선수를 무조건 잡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팬들의 바람과는 달리 한화는 아무도 건지지 못했다. 류현진 포함 박찬호, 양훈 등 주요 선수들의 빈 자리는 개막 후 최다연패(13연패), 한국 프로야구 최초 9위라는 굴욕으로 이어졌다.



▲두 선수와 계약 후 김응룡 한화 이글스 감독은 "좀 한 번 추고 싶다"라는 말로 기쁨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한화는 원소속구단 우선협상 마지막 날, 팀 내 FA 선수였던 박정진, 이대수, 한상훈을 모두 잡았다. 이어 타구단 FA 계약 기간 첫날 아침엔 FA 최대어로 꼽히던 SK 정근우와 기아 이용규가 한화 품에 안겼다. 다음 시즌부터 한화의 유니폼을 입게 된 두 선수는 테이블세터로서 팀의 득점을 지원하고 고질적인 기동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약한 수비도 보강될 전망이다.

한화가 이번 해 스토브리그에서 '대박'을 터뜨리게 된 것은 178억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금액을 투자한 덕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SK와 한화가 70억원으로 같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근우는 한화를 택했

다. 이용규도 기아의 60억 안팎과 큰 차이 없는 67억원에 한화행을 결정했다. 사전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만큼 과감하게 첫 날 아침 도장을 찍은 이유로 두 선수는 입을 모아 "한화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정부터 직접 선수를 찾아간 단장, 운영팀장 외 프런트와 새벽 잠도 마다하고 두 선수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하자'고 제안한 노(老)감독의 진정성이 빛나

는 대목이다. 한화는 과감한 투자와 빠른 행동력으로 부활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보였다. 일찌감치 꼴찌를 확정지었던 2013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눈물 흘려주는 팬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빠른 끝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의 웃음을 위해 죽기살기로 뛰겠습니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던 독수리의 비상이 기대되는 이유다.

*스토브리그: 프로야구에서 시즌오프(season-off)에 각 구단이 팀의 강화를 위해 신인선수의 획득이나 선수들의 연봉협상을 둘러싸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계절(출처:매일경제)

소통의 또 다른 이름, 예술

현대사회에서 모든 학문이나 기술들의 전문화는 매우 긍정적인 발전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 간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둔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예술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도울 수 있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함께 예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음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수업에 임하고 있다.

여기서는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언급된 예술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예술의 이해, 특히 현대예술(동시대예술)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맥락은 기술보다 주제에 중심을 맞추고 감상할 때 작품과 보다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회화를 하는 작가 인지 조소를 하는 작가인지가 중요했던 과거 기술 중심적 방법론이 이제는 작가 중심적 방법론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나라와 방법론이 혼재하는 거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예술가,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작품을 제작하는가?"라는 질문은 세상과 새롭게 소통하려는 작품의 이야기 방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작가의 입장에 자신을 투영시킴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또 다른 시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술이란 철저한 개인의 생산물

이면서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를 반영하는 무엇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는 곧 특정 예술가와 그의 작품을 깊이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아온 시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미술의 이해와 감상의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술에 대한 이해의 방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언제나 다양한 세대가 공존한다. 어느 시대나 적어도 3세대 이상은 세상을 함께 공유했다. 전문화돼가는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소통이 중요한 것과 같이 동시대 다양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세대 간 갈등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예술작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모든 세대 예술가들의 작품 속에는 한 개인으로서 각기 자신의 시대를 살며 고민한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 가면 다시 돌아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았던 세계도,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이 살았던 세계도 예술작품 속에서는 언제나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양한 세대 간의 갈등, 서로 다른 인종, 국가 간의 소통의 문제가 대두되는 때이다. 일찍부터 국제적인 감각과 함께 학업에 몰두하는 우리학교 학생들이야말로 이러한 다양한 세대, 인종, 국가 간 소통의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인재들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언제나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이어간다.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최소영 기자

모르쇠의 앞



가끔씩 깨닫는

너라는 고마움
-하상욱 단편시집 '재부팅'중-

방금 끝마친 인터뷰는 피곤했던 오늘하루를 잊게 만드는 유쾌한 대화였다. 요즘 재밌게 읽는 하상욱 단편시집의 '재부팅'이라는 시가 다시금 외닿을 만큼 인터뷰는 기자활동의 '재부팅'이 된다.

이번 달은 유난히 인터뷰가 많았다. 피곤하지만 기자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받은 일이다. 타인을 대하는 일에 익숙지 않았던 지난날들과 달리 지금은 어느 정도 사람을 만날 때 지켜야 할 예절이나 말투에 융통성이 생긴 자신을 느낀다. 그동안 인터뷰하며 좌불안석 불편하기만 했던 기자가 이제는 인터뷰이를 편히 대하려 노력도 한다.

가끔은 인터뷰이의 진정성 있는 마음과 그의 열정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날이 있다. 반대로 인터뷰이를 편히 대하기 위한 노력이 인터뷰이가 기자를 무시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날이면 '내가 아직 많이 부족했다' 하는 생각에 대화를 나눈 장소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거나 지인에게 전화해 폭풍수다로 갑갑함을 해소하기도 한다. 융통성이 생기고 많이 익숙해 진 것 같지만 아직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건 사실이니 말이다.

얼마 전 취재를 목적으로 여러 단과대학 학생회장을 만났다. 두 귀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공감하고 두 손은 취재수첩에 급하게 받아 적으면서도 동시에 머릿속에는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으면 물도 마시지 않고 씹어 말할까'란 생각이 곱친다. 우리학교를 사랑하며 진실 되게 생각하는 그들은 모두 그만한 이유가 있어 단과대학 학생회장의 위치에 있음을 느꼈다. 또 한 가지, 그들에겐 '프로페셔널함'이 있었다. 멋졌고, 부러웠다.

'프로'란 그것을 알아줄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좋아, 난 프로가 되겠어! 난 프로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프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프로는 끊임없이 성장을 위한 고통을 인내하고 자신 내면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으며 허상에 대한 앞을 확실히 한다. 여러 인터뷰를 거치며, 대학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동안 '내' 인터뷰이와는 옆집 친구와 이야기 하듯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프로'다움을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기자의 어린 부분을 채워간다.

이때까지 필자는 삶 속 행동들에 대해 마음속으로는 '정도(正道)'를 알지만 겉으로는 아직은 모른다고 일관해온 부분들이 많다. '아직은 어렵다...아직은 부족하다...'는 말들로 평계만 대왔던 것이다. 많은 인터뷰와 그들의 열정적인 삶을 들여다보며 이제는 모르쇠로 살기는 싫다는 생각이 든다. 아는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다 모른다고 잡아떼던 기자의 내면이 사실은 이미 '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작원의 말풍선



박선영 글로벌배움터 입학관리팀장

11월 16일과 17일 실시된 논술고사를 끝으로 우리학교의 수시모집 일정이 모두 마감됐다. 27일이면 수능성적이 발표되고 수험생들은 그 결과에 따라 일찌감치 합격이 결정돼 마음 편하게 대학생활을 준비하기도 하고 12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에 응시하기도 한다. 아마도 후자의 수험생들에게 지금이 가장 떨리고 긴장되는 순간일테다. 그러나 이미 합격통보를 받은 학생들은 가끔 사무실로 전화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 본다. 본·분교 통합으로 바뀌는 건 뭔지, 등록금은 얼마인지, 기숙사는 어떤지, 이중전공이나 부전공은 어떻게 하는지 등.

예비 외대생들은 이렇게 전화로 문의하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도 하지만 대부분은 많은 기대와 설렘을 안고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재학생 커뮤니티사이트를 방문한다. 그런데 활발하게 운영되는 어떤 재학생 커뮤니티사이트는 예비 외대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민과 실망만 안겨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그러다 보니 오래 이맘때만 되면 인터넷 공간에 떠돌거나 입소문으로 들었던 우리학교의 부정적인 사항에 대해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이 쏟아진다. 물론 그 중에는 사실에 가까운 것도 있지만,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너무 많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이런 오해를 풀어주기도 한다. 그럴 때면 '차라리 모든 수험생과 학부모가 알고 있는 부정적인 소문에 대해 우리에게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

양 배움터 입학 담당자들은 수험생 유치를 위해 일 년 내내 전국 각지의 고등학교나 입시 설명회에서 홍보하고 상담한다. 그리고 홍보실에서는 각종 언론과 사이버공간의 홍보에도 적극 임한다. 하지만 미처 인식하지 못하

는 사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들이 돌아다니다 보니 일일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학교정책에 대한 찬반이나 학사운영에 대한 문제제기를 넘어 'anti외대'나 'anti글로벌'로까지 격해질 때에는 마음이 너무 무거워진다.

90년대 중반, 우리학교는 한 달에 한번 총장실을 개방해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열린총장실'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매스컴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이 제도는 구성원의 의견수렴창구 역할을 했다. 열린총장실을 시대에 맞게 부활시키면 어떨까? 가령 홈페이지에 '외대신문고'나 'HUFSPAN의 소리'라는 메뉴를 마련해 학교정책이나 학사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점을 이곳에서 표출하고 관련부서가 답변하게 한다면? 마땅한 의견개진 창구가 없어 정작 학교책임자들은 잘 보지도 못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만 공허한 외침과 논쟁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대 총장에 입후보한 모든 후보들이 강조했던 '소통'의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일시정지

부모님! 교수님! 친구야!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2월 5일, 글로벌배움터 인문·경상관 1층 인문대학 학생회실 앞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리장식과 지인에게 보내는 쪽지를 붙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사진 속 권민지 양은 박정근 교수님께 정년퇴임을 축하와 감사인사를 드리고 있다. 주변 사람의 손길이 더욱 따뜻이 느껴지는 완연한 겨울이 왔다. 평소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면 유난히 길고 춥다는 이번 겨울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 『iBT-영어·중국어』

-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2013년부터 컴퓨터 기반의 iBT-영어와 iBT-중국어를 개발하여 주 1회 이상(iBT-영어), 월 1회 이상(iBT-중국어)시행하고 있습니다.
 - ◎ 한국외국어대학교 FLEX센터는 1999년부터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개발 시행하였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1급 개발에 참여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평가도구개발 Know-How를 집약시켜 컴퓨터 환경에서 듣기/읽기, 쓰기, 말하기 시험(듣기/읽기만 선택가능)을 시행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하였습니다.

<영역별 구성 및 시간 : 듣기/읽기만 신청 가능>

교시	구분(영역)	문항유형	문항수	시간(휴식시간제외)
1교시	듣기	3,4지선다형	50문항	40분
2교시	읽기	4지선다형	50문항	60분
3교시	쓰기	입력	3문항	40분
4교시	말하기	녹음	6문항	13분30초
계			109문항	155분

▷ 원서접수 :

가. 인터넷접수 : iBT 홈페이지(<http://ibtflex.hufs.ac.kr>)
나. 접수기간 : 월 09:00 ~ 금 17:00(시험시행 1주전 종료)

▷ 결과발표 : 시험 후 1주일 내 결과 발표(홈페이지)

※ 세부 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평가영역 : 듣기-읽기-쓰기-말하기(듣기/읽기는 객관식, 쓰기, 말하기는 과제수행 형식)▷ 답안채점 : 듣기/읽기 영역의 경우 자동채점으로 시행하며 쓰기, 말하기 영역은 FLEX센터에서 인증한 전문 채점의원이 채점하여 응시자의 취득점수에 근거하여 9개 등급(1A~3C)으로 구분하여 결과 발표를 한다.



국·부장 고정칼럼

당신들의 빨간 도장

▲지난 16일자 한겨레신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매카시즘'을 경고했다. 매카시즘이란 강한 반공주의 성향의 집단에서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태도로 1950년대 미국의 매카시 상원의원이 국무부의 진보적 인사들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발언으로 시작된 '공산주의자 사상'에서 비롯됐다.

▲한겨레 보도에서는 우리나라의 매카시즘에 대한 근거로 이석기 사건 변호인을 '종북', '빨갱이'라 규정하고 규탄한 행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의 노조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등을 내세웠다. 더불어 경희대학교에서 자본론을 강의한 임승수 강사를 해당 강의 1학년 수강생이 반미 및 반자본주의 사상을 가르치며 민주노동당의 간부로 일한 바 있다며 간첩·좌익사범으로 국가정보원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를 선 굵고 '종북'과 '빨갱이' 등의 이름을 붙여 매도하고 규탄하는 행위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경희대학교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학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진보정당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과연 어떤 것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왜 문제가 되는가.

▲지난 21일 글로벌배움터에서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정견토론회가 있었다. 일반 학생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남학생이 물었다. "현재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전적이 있는가?" 이 질문의 의도와 속뜻은 무엇일까. 내가 아는 한 후보는 이날 만난 나에게 "저 선택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당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분명 후보자의 경력사항에 대해 물을 수 있고 현 후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기사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서야하고 시민 활동의 역동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괜히 나섰다가 그들과 함께 '종북', '빨갱이'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주저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사태에서 한 발짝 떨어져 관찰할 뿐이라면 결국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게다가 그 화살은 본인에게로 향하게 될 것이다.

▲지난 13일 민주당 내 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독일의 마틴 니펠러 목사가 쓴 시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를 읽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자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밝히고 더욱 높여야 할 때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건전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사회를 위해서. 그들이 당신을 잡아가기 전에 말이다.

만 평



비둘기 칠판

비둘기칠판 보내는 곳
87curious@hufs.ac.kr

지혜에게

안녕 지혜야. 예전에 내가 편지 쓰는 걸 좋아한다 말하니, 너가 그런데 왜 네게 편지를 안 쓰냐고 물었어. 내 생각엔 난 말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편지에 쓰곤 했던 것 같아. 그런데 너는 말로 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없었어. 그래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네게 편지를 쓰게 되니 좋구나^^ 우리가 만난 지 오래 되진 않았지만, 생각이 닮았고,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너무나도 맞는 구석들이 많지. 너랑 같이 지내면서 속으로 해 보고 싶었던 일들을 많이 해 보고 있어. 너가 없었더라면 분명 혼자서는 못 했을 거야. 그렇기에 너와 함께 보낼 시간들이 더욱 기대가 돼. 만리행에서 함께한 주행들이나 롯데월드나 최근 UCC나 지금 글 쓰는 것까지 너랑 해보는 것들이 무척이나 즐겁다. 요새 우리 둘 다 이것 저것 해보고 동남아팀 준비하고, 공부도 하느라 너무 바쁘지. 그래서 사실 좀 너한테 미안한 것들도 많아. 너를 소홀히 대할 때도 있고, 예전이라면 지혜한테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것들도 있고.... 너가 소중한 친구인 만큼 예의를 지키고 잘 하도록 노력할게! 그리고 우리 수업도 좀 더 열심히 들어가고,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자. 나중에 너랑 왓지끼얌 기숙사 4인실 써보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되면 어쩌해... 아무튼! 팀 스튜디오 훌륭하게 마치고, 학점도 잘 마무리 해서 웃으면서 동남아 여행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안녕!

승원에게

안녕 승원아 헤헤 나는 너의 인생에서 오래된 친구는 아니지만 오래된 친구 역할은 맡은 강지혜라고 해! 너가 쓴 편지는 잘 보았어. 난 그런 너가 좋아. 진정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너! 내가 맨날 웃고 다녀서 마냥 가볍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너는 내 밝은 부분이든 어두운 모습이든 날 그대로 받아주었지. 그래서 항상 고마워. 너가 날 소홀히 대한 것 같이 느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내 생각 네 생각 완전 똑같아^_^ 넌 나에게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 어찌 보고 오늘 보고 내일 보니까 내 생각만 큼 널 아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강지혜의 모습을 보여 줄거야. 이런게 친구 아이기! 그리고 꼭 스시 먹으러 가자! 널 보면 스시만 생각나 미쳐버리겠다! 이것도 우리의 버킷리스트에 포함된다고 한다. 너가 나랑 해보고 싶다고 한 것들 열심히 적어놨어. 곧 보여 줄게. 그리고 너가 또 좋은 점! 하고 싶은 것은 미루지 않고 그때 그때 바로 바로 한다는 점! 처음에는 너가 굉장히 계획적이라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내가 뭐 하자! 하면 '그래!' 해서 매우 좋아 해줄 말이 많은데 아쉽지만 ADIOS 합시다.

베이프리스가 나르몬에게



사설

한국 문화의 세계화와 외대의 역할

이번 달 3일 한국외대서울교육방송국(FBS) 주관으로 열린 '아리랑 10개 언어 콘서트'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다는 표면적인 동기를 넘어 우리학교가 국가적 화두인 창조 경제를 어떻게 선도할 수 있는지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다.

노래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글자수 등 분량만 놓고 보면 외국어 실력자들이 약간의 여가 활용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작업'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와 정 반대이다. 노래 번역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짐작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을 포함한다. 어떤 이들은 아리랑처럼 유명한 노래에 대해 단 한 개의 외국어 번역 가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막상 아리랑의 외국어 번역을 단 한 줄이라도 시도해 본다면, 왜 그 동안 아리랑의 외국어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알게 된다.

노래 번역은 원문의 뜻을 최대한 살리면서 노래의 멜로디, 박자, 리듬에 번역문이 맞아들어가 '노래할 수 있는(singable) 외국어 가사'를 만드는 과정이다. 노래 번역을 위해서는 시작 언어와 도착 언어에 대해 숙련된 지식을 가져야할 뿐 아니라 번역자가 음악적 구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이번 '아리랑 10개 언어 콘서트'에서는 우리 민요 아리랑을 국어 외에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의 9개 외국어로 번역해 불렀다. 번역 작업의 대부분은 우리 학교 통번역대학원 출신 통번역사들이 맡았다.

이번 아리랑 콘서트는 우리 학교가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 우리 학교는 45개 언어를 가르치는 국내 제일의 교육 기관으로서 한국 문화를 여러 언어로 바꾸어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국내 유일의 기관임을 입증했다. 21세기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향후 우리 학교가 국내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펼칠 역할을 기대해 본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기

프랑스의 대표적 신문이라 하면 단연 르몽드를 꼽으며, 전 세계적 권위지, 지식지로 평가받고 있다. 르몽드의 창간자인 뵈브-메리가 주창한 신문관은 다음과 같다.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바보 같은 진실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픈 진실은 슬프게 말하라.

1983년 레인보우 워리어 호 사건은 르몽드의 이러한 정신을 잘 보여준다. 당시 프랑스 정부에서는 자국 영토인 무루로아(Mururoa)섬에서 몇 년간 핵 실험을 진행했다.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 이를 반대해 1985년 레인보우 워리어 호를 비롯한 여러 척의 배로 남태평양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그런데 그 레인보우 워리어 호에서 정체불명의 폭탄이 터져 배가 침몰했고 성원 한 명이 숨졌다. 당시 르몽드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사건을 끈질기게 파헤쳤고, 결국 이 사건이 프랑스의 특수 부대 요원에 의해 자행됐음을 밝혀냈다. 결국 프랑스의 자행임을 밝혀내 자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전 세계의 비난을 받게 한 르몽드의 행위는 표면적으로 본다면 '반국가적', '반민족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온전한 상식을 가진 이가 과연 르몽드를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사실'과 '진실'도 다르다. 무책임한 사실 보도는 또 다른 오해를 양산해낼 뿐이다. 사건의 발단과 배경, 과정, 결말까지를, 분쟁에 있어서는 양 쪽의 이야기를 공정하게 담아내야 한다. 르몽드는 언론이 추구해야 하는 '진실'의 정도(正道)를 보여준다.

분명 시대는 변했고, 그에 따른 대학언론 (혹은 기성언론 역시) 또한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의 반성에서 오는 것이다. 최연규 저 살림출판사의 "르 몽드"라는 저서에서는 언론은 사회를 향한 비판 뿐 아니라 내부를 향한 끊임없는 반성과 감시를 행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제는 언론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때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 일시정지(사진) / 비둘기 칠판(3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외대학보

www.oedaehagbo.com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철

편집인 겸 주간 전종섭

편집장 신민지 | 부장 이은결

정기자 임수진 최소영 허규범

조교 정다빈 지윤주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facebook /newhufspress



작곡가 이재현(사범·영교 07)

Q. 현재 어떤 작업을 하고 어떤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 음악 프로듀서, 작곡가로서의 자신을 소개해달라.

대중음악 작곡가, 음악 PD를 희망하는 이재현이다. 아이돌 연습생이

나 전공자들, 가수 지망생들과 함께 내가 쓴 곡을 녹음해 데모곡을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다음 해 졸업을 앞두고 이 곡들을 바탕으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금 인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다른 사람들에게 곡을 들려주고 추천을 통해 방송에 나가거나 다른 음악가들과 음악적 교류를 하며 경험을 쌓고 있다.

Q. 작곡가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2008년부터 곡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고가의 악기나 관련 장비가 있어야 작곡을 할 수 있었지만 그때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만 있으면 작곡을 할 수 있었다. 이에 흥미를 느껴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고, 그 후 곡 하나를 만들어 게시했는데 그 해의 베스트 게시물이 됐다. 이것을 계기로 스스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2012년이다.

Q. 독학으로 음악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떤 고충이 있었나?

우리나라 음악산업 구조 상 수많은 작곡가 중 10등 안에 들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실력에 비해 너무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컸다. 또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없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대중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곡을 만드는 사람인데 곡을 들려줄 만한 사람이 없던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노래를 불러줄 보컬도 없었다. 작업상 전문 가수를 데리고 할 수도 없었고 보컬 트레이너나 지망생들과 하자니 인맥이 부족했다.

Q. 재학 중에 전공과 다른 음악계의 길을 걷기로 결정했는데 영어 교육이라는 전공의 특성상 고민도 없지 않았을 것 같다. 어떤 고민이 있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직업 중 하나인 교사가 될 수 있는 전공이면서 그에 비하면 불안정해 보이는 예술 분야의 일을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물론 작곡가로서 성공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고민은 있었지만 평소 전공과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진로를 결정할 때 고민은 없었다. 작곡 전공 대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게 될 정도로 실력이 붙고 나니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Q. 항공사 진에어의 환경 캠페인인 세이브디에어(SAVE THE AIR)에서 진행한 그린송 페스티벌에 참가한 곡은 서정적인 가사와 멜로디가 인상적이고 박기영씨와 작업한 곡은 전통적인 느낌을 살린 곡이라고 자랑한 바 있다. 이러한 음악적 영감은 어디서 받나?

감정적이기 보다 계산적인 편이라 다른 음악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배경음악의 비트가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 노래를 찾아 들으며 왜 좋게 들렸는지 분석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 것으로 재해석한다. 그로부터 시작해 아예 새로운 곡을 만든다. 이렇듯 작곡하고자 하는 곡에 맞는 장르의 음악을 듣는 편이다.

Q. 그린송 페스티벌이나 TV 프로그램 작곡왕 출연 등 음악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작곡가, 음악 프로듀서가 되고 싶은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듣고 싶다.

대중성과 예술성, 다양성을 갖춘 작곡가가 되고 싶다. 그런 점에서 조용필 씨를 존경한다. 특히 13집 '꿈'은 대중성과 예술적인 면모를 고루 갖추면서도 그 시대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어 들을 때마다 감탄한다. 이런 곡들이 탄생하기 위해 먼저 대중들이 음악을 많이 알아야 한다. 단순히 보기 좋은 아이돌이나 춤추기 좋은 음악을 선호하기보다 재즈의 화성적인 아름다움도 아는 대중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콘텐츠 등 교육 시스템을 바꿔보고자 하는 포부도 있다.

Q. 이재현 군처럼 전공과 하고 싶은 일이 다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양한 대학생활을 해보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 하고 싶어하는 일은 허황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가지 대학생활을 통해 본인이 진정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리도 해보고 공모전도 나가며 좋아하는 분야의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막연한 진로 설정보다는 실제로 그 일을 해봐야 자신의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것 같다.

이재현&박호정, 그들이 말하는 음악이라는 꿈

재학 중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학업과 음악의 길을 동시에 걸어온 두 학생이 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음악이라는 같은 꿈을 꾸며 각자의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길을 달려가고 있는 두 학생을 만나봤다.

글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사진 신민지·허규범 기자 87kennedy0412@hufs.ac.kr

Q. <스타 오디션 위대한 탄생>에서 본선까지 진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수로서의 자신을 소개해달라.

지금 가수 보여름가을겨울의 전속 코러스 멤버로 1년 반째 일하고 있다. 코러스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가수만큼 곡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코러스는 필요할 때마다 일회적으로 불러지기에 전속 멤버로서 활동을 하는 것은 흔하지 않다. 현재 실용음악 관련 대학원 진학도 준비 중이다.

Q.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출신 고등학교가 모 여성정치인의 모교인데 고등학교 재학 중 국회 방송에서 촬영한 적이 있다. 그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른 이후 갑자기 교내 '스타'가 됐다. 종종 다른 반에서도 노래를 부르곤 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 집안의 반대로 실용음악과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우리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밴드 동아리에서 활동하거나 축제 무대에 서는 등 꿈을 키워왔다.

Q. 재학 중에 전공과는 다른 일을 시작해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어떤 고민이 있었나?

욕심이 많아서 일과 공부 모두 놓치고 싶지 않다보니 시간관리가 어려웠다. 평소 음악을 한다고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득이하게 공연이나 방송 녹화와 겹쳐 수업을 결석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서울로 이동하게 되면 겨우 몇 시간의 잠을 자는 생활을 반복하다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며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습관이 생겼다.

Q. 전공자는 아니지만 '전공자들의 영역'이라고 불리는 코러스 가수로서 난관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 어떤 고충이 있었나?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묻는다. 대부분이 전공자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출신이라고 하면 말로는 "공부도 하면서 음악도 했네"라 하지만 실력을 불신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 이름만 대면 인정받는 전공자에 비해 오로지 노래 실력으로 승부해야 해 밤을 새가며 열심히 연습했다. 외롭기도 하다. 스스로 주변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 다른 두 영역의 갈림길에서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거기서 오는 고민을 누구에게나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는 외로움도 있었다.

Q. 하지만 매번 힘들기만 했다면 지금의 '박호정'은 없었을 것이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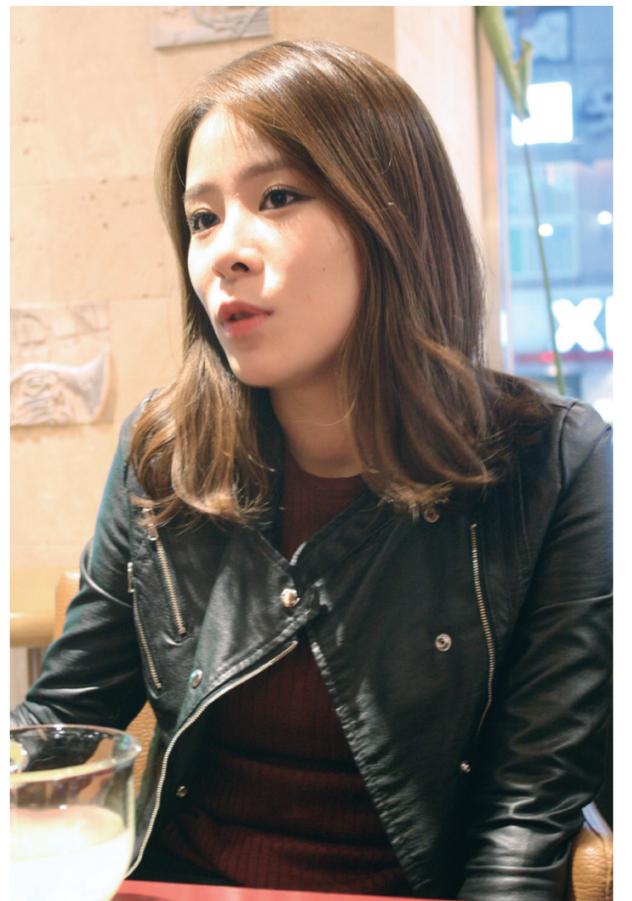
코러스 멤버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여름가을겨울의 곡 '브라보 마이 라이프' 10주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핑크플로이드'의 곡 중에서 코러스 걸 두 명이 애드리브로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때 나에게 단독으로 노래한 기회가 주어졌다. 나의 장점인 고음과 파워풀한 가창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고 4천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아직도 그 때의 동영상을 보면 자극을 받는다. 실력이 불확실해 보였을 때 그 무대를 통해 보여름가을겨울과 밴드 멤버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다. 스스로 자신감이 생긴 것은 물론이다.

Q. 위대한 탄생 출연, 코러스 가수로서의 활동 등 음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목표를 듣고 싶다.

내 꿈은 유명해지는 것보다 음악을 계속하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돌이 아니라도 자기 음악을 하는 사람이 많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인정받는다. 나도 코러스로 경험을 쌓은만큼 내 앨범을 내고 주인공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또 가수 이은미나 한영애처럼 50대가 돼도 나만의 밴드를 꾸려 전국 투어를 꿈꾸기도 한다.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었을 때 단번에 나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Q.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진심으로 원하고 관심을 가지면 길은 열린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해볼까?'가 아니라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하지?'라고 고민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직접 경험해보라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해 봐야 직성이 풀리냐고 묻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해 봐야 알겠다'고 답한다. 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로 테지만 부딪혀봐야 어떻게 자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수 박호정(인문·언어인지 08)